



하루에 하나

2026.7.3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548.50원 (-4.00원)

KOSPI

7,648.09 (-655.32, -7.89%)

KOSDAQ

866.72(-62.63, -6.74%)

국고채 10년 금리

4.183(-0.02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제약/바이오 Bio-USA 2026 참관후기 '중국과 시로 격화된 경쟁' [김선아]

Global Asset Strategy

Global Macro Alert 한국 수출 호조 반영해 26년 성장률 3%대로 상향 조정 [전규연]

기업분석

LG전자 관세 환급 반영으로 컨센서스 상회 [김민경]

펄텍코리아 불확실성 해소 국면 [박종대]

산업분석

카지노 하반기 사상 최대가 다가옵니다 [이기훈]

증권 6월 업종 Check [고연수]

Monthly & Weekly

자동차/이차전지 2026년 5월 EV +7%. 유럽만 좋은 상황 [송선재, 김현수]

유틸리티 전력시장의 속도와 스케일이 달라진다 [유재선]

글로벌리서치

미국 기업 & 산업 메타 사태: AI 반도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강재규]

단기투자유망종목

KB금융, 한화오션, 삼양식품, 대덕전자, 세방전자,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코스메카코리아

2026년 7월 3일 | Global Asset Research

Economy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Macro Alert

한국 수출 호조 반영해 26년 성장률 3%대로 상향 조정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상회한 한국 6월 수출액

한국 6월 수출/입이 각각 70.9%/30.1%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36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상회했고, 반도체 수출은 200%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지난 해보다 1.5일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 증가율도 59.5%에 달한다. AI 투자 사이클 확대 효과로 반도체(199.5%), 컴퓨터(308.8%)를 비롯한 IT 부문이 한국 수출 호조를 주도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는 IT 외 주요 품목들도 고르게 증가하며 수출 회복을 뒷받침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석유화학,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늘어나며 전년비 92.1%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도 반도체, 컴퓨터, 전자기기 수출 호조에 이어 화장품, 농수산물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며 전년비 78.6%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더 강한 한국 수출 모멘텀, 2026년 한국 성장률은 3.3%로 상향 조정

예상보다 더 강한 한국 수출 모멘텀을 반영해 2026년 한국 성장률은 3.3%로 상향 조정한다. 1분기 GDP 잠정치가 전분기비 1.8%로 상향 수정됨에 따라 기계적으로 당사의 성장률 전망치도 +0.2%p 가량 높아지게 되며,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에 따른 대외부문 기여도 상향,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등이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메모리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에도 세 자릿수 대 증가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따른 원유 수입물량 확대가 한국 수입 증가율 상승을 유도하며 무역수지 흑자 폭을 일부 줄일 수 있으나, 예상보다 빠른 유가 하락은 원유 수입단가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경기 상방 요인 우세.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도 고려

한국 경제는 당분간 상승 탄력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및 한국 은행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듯 하다. 상반기 한국 소비자물가가 공급측 요인에 의해 상승했다면, 하반기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요측 물가 압력이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비 3.2% 상승했는데,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내구재 가격이 5월 2.4% → 6월 3.1%로 오르면서 근원 물가 부담(6월 전년비 2.5%)이 커졌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유효하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신용대출 위주로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Economist 권규연 kychun@hanafn.com
RA 이태석 taeseoklee@hanafn.com

2026년 7월 3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60,000원(상향)
현재주가(7.02) 192,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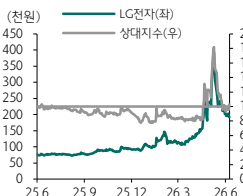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7,648.09
52주 최고/최저(원)	392,500/72,200
시가총액(십억원)	31,322.7
시가총액비중(%)	0.50
발행주식수(천주)	162,884.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831.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39.9
외국인지분율(%)	28.36
주요주주 지분율(%)	
LG 외 2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94,056.7	97,787.3
영업이익(십억원)	3,887.9	4,310.8
순이익(십억원)	2,277.4	2,748.3
EPS(원)	10,855	13,210
BPS(원)	144,450	157,04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7,728.2	89,200.9	94,423.8	98,092.4
영업이익	3,419.7	2,478.4	4,369.4	5,170.1
세전이익	1,335.8	1,836.4	3,320.7	3,912.0
순이익	367.5	960.6	2,050.4	2,363.3
EPS	2,032	5,321	11,387	13,125
증감율	(48.45)	161.86	114.00	15.26
PER	41.09	17.27	16.89	14.65
PBR	0.72	0.69	1.29	1.20
EV/EBITDA	3.66	4.22	5.12	4.33
ROE	1.81	4.28	8.10	8.51
BPS	116,348	132,656	148,543	160,219
DPS	1,000	1,350	1,450	1,450



Analyst 김민경 minkyung.kim@hanafn.com

LG전자 (066570)

관세 환급 반영으로 컨센서스 상회

2Q26 Preview: 관세 환급 효과로 컨센서스 상회 전망

별도 기준 매출 18조 577억원 (YoY +6.6%, QoQ -1%), 영업이익 1조 2,489억원(YoY +100%, QoQ -9%, OPM 7%)으로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전망이다. 컨센서스 상회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관세 환급 효과이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해도 원재료비 및 물류비 부담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판가 인상 및 원가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이 방어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높은 원달러 환율 및 iPhone 판매 호조로 LG이노텍 영업이익 또한 추정치를 상회하며 연결기준으로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신사업 본격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 유효

데이터센터 쿨링 시스템, 로봇틱스 등 신사업 구체화가 하반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I 데이터센터향 쿨링 시스템은 북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의 쉘 테스트가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으며 최종 테스트 완료 후 6~9개월 내 실적 기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틱스 사업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을 위한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고도화에 필요한 동작 데이터를 축적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장기 관점에서 가정용 및 산업용 로봇 시장 전반에 대한 사업 확장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목표주가 26만원으로 상향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6만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7년 예상 BPS에 지난 5년간 PBR 밴드 평균값인 1.6배를 적용했다. 원가 효율화를 통한 이익 체력 개선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환급에 따른 단기실적 호조 및 신사업 본격화가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쿨링 시스템의 실적 기여는 27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로봇틱스 사업의 경우 빅테크 업체와의 협력 소식에 따른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07월 0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Not Rated

현재주가(7.2) 38,65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66.72
52주 최고/최저(원)	73,300/32,550
시가총액(십억원)	479.3
시가총액비중(%)	0.10
발행주식수(천주)	12,4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2.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7
외국인지분율(%)	13.51
주요주주 지분율(%)	
이도훈 외 4인	59.97
브이아이피자산운용	9.60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08	460
영업이익(십억원)	62	73
순이익(십억원)	55	61
EPS(원)	3,522	3,702
BPS(원)	26,374	29,439

Stock Price**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237	284	337	372
영업이익	26	35	48	57
세전이익	25	37	48	54
순이익	19	27	33	34
EPS	1,543	2,177	2,637	2,778
증감율	7.9	41.1	21.1	5.3
PER	10.7	11.0	16.5	18.8
PBR	0.9	1.2	2.0	2.2
EV/EBITDA	4.5	5.4	8.1	8.6
ROE	9.1	11.3	12.3	11.7
BPS	17,383	19,205	21,422	23,774
DPS	360	380	420	45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펄텍코리아 (251970)**불확실성 해소 국면****2분기 연결 영업이익 197억원(YoY 1%) 추정**

2분기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6%, 1% 증가한 1,117억원과 197억원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화장품 용기 수요 증가로 본사 매출이 YoY 6%, 부국티엔씨 매출이 YoY 10%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다만, 잘론네츄럴(건기식) 적자가 8억원까지 늘어나면서 증익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듯하다(이 사업은 곧 철수할 수 있다). 화장품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주수량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스포이드는 상반기 연간 목표치를 다 달성했다. 부국티엔씨는 증설 효과가 바로 매출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수를 생산이 못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저마진 스틱/스포이드 매출 비중이 상승하면서 본사 영업이익률은 17.5%(YoY -1%p)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

4공장 개파 증설 작업 완료, 풀가동 중

사실 4공장은 12월부터 이미 가동하고 있었다. 4공장 증설은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투자였다. 1~3공장의 사출 라인을 4공장으로 옮기고 기존 공장 빈 공간을 조립 라인으로 늘리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용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출기가 모자라게 되었고, 매출이 정체된 것이다. 4공장은 거의 풀가동 중이고 사출기 증설도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7월말 6공장이 준공 예정이고, 9월부터 사출기 증설 효과가 매출로 반영될 것이다. 물론, 구조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저가/단순 용기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포이드 가운데서도 고마진 오토드롭, 콤팩트 매출도 부진하다. 부가가치가 높은 후가공도 최소화하고 있다. 부국티엔씨 튜브 매출이 좋은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1~2%에 불과하던 스포이드 매출 비중은 최근 8%까지 상승했고, 콤팩트는 최대 30%에서 최근 18%까지 하락했다. 사출기 부족이 이러한 불균형을 더 확대한 측면도 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 확대, 밸류에이션 정상화 예상

2분기 이후 QoQ 확연한 실적 개선세가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i) 콤팩트 등 고마진 카테고리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ii) 헤어 등 신규 카테고리 확대, iii) 사출기 증설 효과로 인한 병목현상 해소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이 예상된다. 9월 사출기 및 신규 조립장치 증설까지 감안하면 4분기 매출은 3분기보다 더 클 수 있다. 전년도 기저 효과로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YoY 15%, 25% 증가하면서 확연한 실적 모멘텀 회복이 예상된다. 2026년 한국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모멘텀이 역대 최대급인 상황, 국내 최대 용기 업체 펄텍코리아의 수혜가 작을 리 없다. 마이크로적인 증설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화장품 수출 증가율과 동행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9.7배에 불과하다.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12MF PER 15배 이상 정상 밸류에이션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2026년 7월 3일 | 산업분석_Earnings Preview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강원랜드(035250)

BUY | TP 22,000원(하향) | CP 14,750원

롯데관광개발(032350)

BUY | TP 26,000원(하향) | CP 15,210원

파라다이스(034230)

BUY | TP 25,000원 | CP 14,530원

GKL(114090)

BUY | TP 16,000원 | CP 10,400원

*CP 2026년 7월 2일

카지노

하반기 사상 최대가 다가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하나 2027년 예상 P/E 9~11배에 불과

마카오 카지노 주가가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시에 집중된 수급 영향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지속 부진하다. 다만, 마카오의 부진은 한국 외인 카지노와는 다소 무관한 이슈이며, 2분기 모두 두 자릿수 드랍액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일령의 수혜 등에 따른 인바운드의 고성장과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하반기에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는 각각 롤링 경쟁력 확대와 호텔 인수 효과 등으로 3분기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목표주가의 높은 괴리로 강원랜드와 롯데관광개발의 목표주가를 소폭 하향하지만, 2027년 예상 P/E 9~11배 수준에서는 지속적인 비중확대를 추천한다.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를 추천하지만, 단기적으로는 GKL이 최근 좋은 실적 흐름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강원랜드/GKL 상회, 롯데관광개발/파라다이스 부합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576억원(-1% YoY)/507억원(+53%)/481억원(+12%)/241억원(+51%) 강원랜드/GKL 상회, 롯데관광개발/파라다이스는 부합할 것이다. 강원랜드는 실적은 특이사항이 없지만 컨센서스가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GKL은 오랜만에 분기 드랍액 1조원 및 매출액 1,200억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이 예상된다. 롯데관광개발은 테이블 드랍액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롤링 경쟁력 강화와 고액 베팅 테이블 확대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며, 파라다이스도 부산의 고성장과 하얏트 리젠시 인수 효과 등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마카오 카지노 주가 부진은 부담이나 한국과는 무관한 이슈

마카오 카지노 주가는 -33% (YTD)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도 2027년 평균 P/E 10배 이하로 하락했다. 6월 마카오 GGR은 -12%, 누적으로도 +7% 성장에 그치고 있는데 작년 Jacky Cheung 콘서트의 역 기저효과에 더해 월드컵으로 인해 베팅 일부가 스포츠 이벤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드컵이 이어지는 7월까지 역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부진하다. 또한, 갤럭시엔터/샌즈차이나/원마카오 등은 호텔 등 Capex 및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있으며, MGM차이나도 브랜드 라이선스 비용의 가파른 상승으로 마진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는 모두 한국 외국인 카지노와는 무관한 이슈다. 인바운드 증가와 원화 약세로 2분기 드랍액이 모두 좋았으며, 파라다이스/롯데관광개발 등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RA 김현수 hyunsookim@hanafn.com

2026년 07월 03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7월 02일

키움증권(039490)

BUY | TP 570,000원 | CP 322,500원

삼성증권(016360)

BUY | TP 175,000원 | CP 107,900원

NH투자증권(005940)

BUY | TP 44,000원 | CP 28,950원

한국금융지주(071050)

BUY | TP 330,000원 | CP 225,500원

미래에셋증권(006800)

BUY | TP 95,000원 | CP 40,150원

증권

6월 업종 Check

2분기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90.0조원(QoQ +35.1%)

6월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99.4조원(KOSPI 86.0조원, KOSDAQ 13.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6.4% 감소했으나, 2분기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90.0조원(KOSPI 72.7조원, KOSDAQ 17.3조원)으로 전분기대비 35.1%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6월 KOSPI가 9,000을 돌파하며 월간 회전율은 313%(vs. 2021년 1월 310%)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KOSDAQ 회전율은 654%(vs. 2021년 1월 1,003%)에 그쳤는데 거래대금과 회전율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며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694억달러(MoM +14.6%)로 2개월 연속 2025년 월평균(550억달러)을 상회했으며, 이에 2분기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1,802억달러(QoQ +15.2%) 기록했다. 6월 해외주식 순매수대금도 2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SpaceX 상장 이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2분기 순매수 상위 종목은 SpaceX(19억달러), 마이크론(15억달러), 알파벳(9억달러), 마벨(8억달러) 순으로 우주, AI 및 반도체 관련 종목 중심의 매수세가 나타났다.

2분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0%(QoQ +15bp),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09%(QoQ +21bp) 기록했다. 국고채 3년물 기준 2025년 4분기 37bp, 2026년 1분기 60bp 상승한 점 감안 시 채권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커버리지사의 채권평가손실은 전반적으로 우려대비 양호할 전망이다.

Top Pick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유지

Top Pick으로는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를 유지한다. 삼성증권은 1) 리테일 관련 수익 비중이 높아 하반기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도 현 수준의 거래대금이 유지되는 한 안정적인 실적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2) IBKR 제휴를 통한 해외 투자자의 국내주식 거래도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관련 수익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IBKR 관련 거래대금은 전체 국내주식 약정의 4~5%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기준 영업이익 기여도는 약 500~700억원 수준이다.

한국금융지주는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만큼 QoQ 이익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이 타사대비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캐피탈-저축은행 등 증권을 제외한 자회사들 역시 1분기 중 주식 관련 익스포저를 축소한 영향으로 관련 평가이익은 QoQ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ETF LP 관련 수익과 트레이딩 부문 내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이를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6월 ETF 거래대금 점유율 27%), 연간 기준 순이익 2.5조원 달성 시, 배당성향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25%)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6년 DPS 증가율은 38% 수준(기대배당수익률 5.3%)으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높다고 판단한다.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2026년 5월 EV +7%. 유럽만 좋은 상황 | 2026.7.3



투자 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2차전지 Analyst 김현수 hjunsoo@hanafn.com

RA 홍지원

전기차: 5월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은 +7% (YoY)

- 글로벌** • 5월 185.3만대(+7% (YoY)). BEV/PHEV 134.2만대/51.1만대(+18%/−14%). 5월 누적 775.4만대(YTD +3.5% (YoY))
- 미국** • 5월 9.4만대(−33% (YoY)). BEV/PHEV 8.2만대/1.2만대(−25%/−61%). 5월 누적 43.2만대(YTD −33.5% (YoY))
• 5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Y/모델3로 각각 2.17만대/1.09만대
- 중국** • 5월 108.4만대(Flat (YoY)). BEV/PHEV 76.6만대/31.7만대(+10%/−24%). 5월 누적 420.6만대(YTD −9.9% (YoY))
• 5월 판매대수 1위/2위는 Geely의 Star Wish/테슬라의 모델Y로 각각 3.88만대/3.15만대
- 유럽** • 5월 41.7만대(+26% (YoY)). BEV/PHEV 28.7만대/13.0만대(+33%/+12%). 5월 누적 198.8만대(YTD +27.5% (YoY))
• 5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Y, BYD Yuan UP으로 각각 1.75만대/1.11만대
- 한국** • 5월 3.6만대(+58% (YoY)). BEV/PHEV 3.5만대/0.1만대(+63%/−27%). 5월 누적 16.6만대(YTD +110.3% (YoY))

2차전지: 글로벌 5월 배터리 출하 +23%(YoY), CATL 1위

- 출하량** • 5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23%(YoY) 증가한 115.4GWh를 기록. 업체별 출하량은 CATL 46.5GWh(+32%), BYD 17.4GWh(+9%), LGES 9.4GWh(+8%), CALB 5.8GWh(+28%), SK on 3.4GWh(+1%), Panasonic 3.1GWh(−24%), 삼성SDI 1.7GWh(−35%)
• 5월 LFP 배터리 침투율은 글로벌 59.3%로 전월 대비 +0.3%p 상승
- 원재료 동향** • 주 원재료 가격 동향: 리튬/니켈/코발트/망간/구리/알루미늄/LiPF6 가격은 5월 +14%/+4%/−0%/−2%/+5%/+2%/+10%(MoM), 6월 −4%/−6%/+0%/−3%/+0%/−6%/+3%(MoM)

전기차(BEV+PHEV) 주요 지표 (2026년 5월)

(단위: 대, %)

지역	5월	YoY	누적(1-5월)	YTD
글로벌	1,853,400	+7.2	7,753,964	+3.5
미국	94,363	−32.6	431,735	−33.5
중국	1,083,806	−2.6	4,206,586	−9.9
유럽	417,331	+25.6	1,988,020	+27.5
한국	36,282	+57.9	166,498	+110.3

주: 소매판매 기준 / 자료: SNE Research, 하나증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업체별 순위

(단위: GW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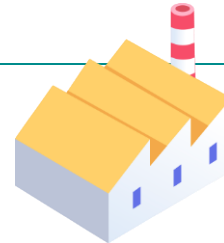
월 순위	업체명	5월	YoY	점유율	누적순위	누적	YTD	점유율
	Total	115.4	+23.3			469.2	+16.3	
1	CATL	46.5	+31.7	40.3	1	188.4	+22.2	40.2
2	BYD	17.4	+9.2	15.1	2	67.6	+0.6	14.4
3	LGES	9.4	+8.0	8.1	3	41.0	+7.4	8.7
7	CALB	5.8	+27.7	5.1	4	23.8	+35.3	5.1
5	SK on	3.4	+1.0	3.0	5	15.8	−5.8	3.4

자료: WardsAuto, CPCA, EV-sales, ACEA, KAMA, 현대차, 기아차, SNE Research, 하나증권

시사점 및 의견: 실적 개선 가시화, 비중확대 유지

- 2차전지** • 2026년 5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는 22.8GWh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 반면, 국내 3사(LGES, 삼성SDI, SK on)의 유럽 출하량은 각각 4.1GWh(YoY +22%), 1.0GWh(YoY Flat), 1.5GWh(YoY −14%) 기록. 3사 모두 시장 성장을 하회. 유럽 내 한국 3사 합산 시장 점유율 2개월 연속 30% 미만 기록. 다만 LGES이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점이 긍정적. 테슬라 유럽 판매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 확인. 그러나 삼성SDI와 SK on의 유럽 부진 지속.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산업가속화법안(IAA) 구체화에 따른 유럽 공장 가동률 회복 및 미국 유틸리티 EV CAPA의 ESS 전환과 AMPC 수취 효과가 맞물리며 셀 메이커들의 실적 개선 전망. 상기 유럽에서의 부진은 이미 국내 셀 메이커 추정치에 반영된 상태에서 2분기부터는 ESS 실적 개선으로 LGES와 삼성SDI 모두 연중 분기 흑자전환 가능 전망. 각각 1년, 2년 만의 흑자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고 판단. 셀 메이커 중심의 배터리 섹터 비중확대 의견 유지

전력시장의 속도와 스케일이 달라진다



유틸리티 Weekly | 2026.07.03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14.3% 상회했다. 1일 증가 기준 WTI 69.7달러/배럴(WoW -2.4%), 미국 천연가스 3.2달러/mmbtu(+3.0%), 아시아 LNG 현물 16.0달러/mmbtu(+3.0%), 호주산 유연탄 129.6달러/톤(-9.7%), 원/달러 환율 1,550.9원(+0.5%)을 기록했다. 유럽이 확보한 가스 재고 수준이 낮아 여름철 이후 LNG 현물 가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2025년 삼성전자 DS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전력사용량은 각각 30.4TWh, 13.7TWh로 지난해 연간 한국 전체 전력사용량의 약 8% 비중을 차지했다. APR1400 4기 이상으로 대응 가능한 수요다. 기존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증설 계획도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설이 발표된 상황이다. 지산지소로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해소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과 사회적 갈등을 감안하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수 있다.
- 한편 반도체와 피지컬 AI 관련 설비를 제외하고 AI 데이터센터만 고려하더라도 상상 이상의 전력 수요 증가가 결과로 도출된다. AI DC 1GW당 70% 가동률 및 연간 6.1TWh 규모의 전력사용량을 가정할 때 18.4GW 설비에 필요한 전력량은 112.6TWh로 2025년 연간 소비량의 20% 수준에 해당된다. 연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치는 대폭 상향 수정될 예정이며 기존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프라 투자가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전기본 확정 후 후속으로 진행된다. 향후 송전용량 확보 이후 용인 산단에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동해안 및 서해안 여유 발전원은 준공 시점을 고려할 때 용인 산단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건설되는 AI DC용 수요로 먼저 대응될 수 있다. 기존 추세와 달리 대규모 AI DC 수요가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송변전설비 확충에 더해 가용한 모든 발전원이 전기본 공급 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지난 4월 발표된 12차 전기본 잠정안에 담긴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기존 시나리오 131.8GW, 상향 시나리오 138.2GW다. 이번 투자계획을 반영하면 해당 경로의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100GW, 노후 석탄화력발전설비 폐지 등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책들도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관점에서도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 가능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증설 계획은 더욱 빨라지고 폐지 일정은 다소 현실화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Mix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일 것이고 ESS가 따라가는 모양으로 예상된다. 2035년까지 55GW 입찰 일정이 담긴 해상풍력 10년 로드맵이 공개되었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제한적인 증설에 그쳤던 대규모 기저설비가 유의미하게 반영될 가능성만으로도 유틸리티 산업의 성장성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일부 중국산 기자재의 시장 진입도 간접적으로 허용된 점에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SMR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 또한 이런 추세에서 특별히 제외될 이유는 없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2일 증가 기준 23,450원으로 전주대비 3.5% 상승, YTD 125.5%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환율 제외한 원가 지표 안정화 국면. 하반기 12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확대 계획 확인 시 모멘텀 부각 기대
- 지역난방공사: 열요금 동결 발표. 2022년 발생 미수금 회수로 인하여 요인 발생했지만 동결 지속 시 실적 눈높이 상향 가능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7.02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esearch Assistant 이재은 jaeunlee@hanafn.com

메타 사태: AI 반도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AI 인프라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

- 메타의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AI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벌써 AI 반도체 수요 약화를 걱정하는 것은 과하다. 메타의 새로운 사업 진출은 재무 부담을 덜고, 성장하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함이다. 시장참여자들은 메타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반기면서도 재무 부담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버 투자는 플랫폼 확장 및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만, 메타의 AI 인프라 투자는 비용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메타의 신사업 진출은 강한 AI 수요를 시사하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자본지출 전망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 현지시각 7월 1일 메타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메타 주가는 8.8% 상승 마감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6.3%)는 급락했다. 메타가 잉여 컴퓨팅 자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메타는 이번 AI 투자 사이클에 자본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던 주요 기업 중 하나다. 남은 컴퓨팅 자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잉투자 및 자본지출 축소 우려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
- 메타의 신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AI 인프라 수요가 강하다는 증거다.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고(ROIC), 재무 안정화와 재투자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을 것이다. 메타의 의사결정 근거는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 알파벳 등의 계약을 통해 가능해 볼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세 개의 사업부 중 AI 사업에 가장 큰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FY 2025 기준 자본지출은 발사체 약 38억 달러, 위성통신 약 42억 달러, AI 약 127억 달러다. FY 1Q26 기준으로 AI 약 77억 달러, 발사체 약 11억 달러, 위성통신 약 13억 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AI 사업부 매출 비중은 17.1%로 가장 낮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강한 수요와 빠른 성장이다.
-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1에 들어간 자원은 엔비디아 GPU 22~23만 개로 알려져 있다. Tom's Hardware에 따르면 초기 도입된 H100 10만 개와 추가 5만개를 감안하면 H200은 약 5만 개 수준으로 판단된다. GB200은 보수적으로 3만개 수준으로 가정하면 콜로서스1의 GPU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수적으로 H100 2.8만 달러, H200 3.5만 달러, GB200 4.5만 달러 등을 적용하면 총 GPU 투자액은 73억 달러다. 가중평균 단가는 GPU당 약 3.2만 달러다.
- 스페이스X는 엔트로픽에 2029년까지 엔비디아 GPU 22만 개를 월 12.5억에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총액은 약 450억 달러(36개월 x 12.5억 달러)이며, 연매출 기준 약 150억 달러다. 스페이스X는 알파벳에게 2029년까지 엔비디아 GPU 11만 개를 월 9.2억 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 총액은 약 331억 달러(36개월 x 9.2억 달러), 연 매출은 약 110억 달러다. 두 계약을 합하면 연 환산 약 2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FY 2025 자본지출 규모인 127억 달러보다 크다. 콜로서스 1의 초기 클러스터 가동 및 20만 GPU급 확장 등이 2024~2025년 사이에 이뤄졌고, 2026년 엔트로픽과 알파벳 등과 대형 컴퓨트 계약이 체결됐다. 스페이스X는 AI 인프라 투자 이후 1~2년 내 대규모 매출 계약을 확보한 것이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단순 비용 증가가 아닌 외부 임대 및 클라우드 매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메타의 신사업 추진 가능성 보도 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도 급락했다(CRWW -13.9%, IREN -5.3%, NBIS -17% 등). 초대형 경쟁사 등장 우려 때문이다. 코어위브의 북미 데이터센터 GPU당 단가는 GB200 NVL 72 10.5달러부터 HGX H100 6.16 달러까지 형성돼 있다.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 계약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GPU 당 약 7.8 달러/h다. 알파벳의 계약은 약 11.5달러/h다. 콜로서스의 GPU 구매원가(가중평균 3.2만 달러) 대비 각각 약 5.6개월, 3.8개월이면 회수되는 수준이다. 3년 계약 기간 대부분이 순수익 구간임을 의미한다. 대규모 AI 클러스터가 임대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높은 투자 회수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6/29	339,500	314,500	-7.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6/29	2,673,000	2,560,000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KB금융 (105560.KS)	6/29	149,300	158,500	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에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한화오션 (042660.KS)	6/29	98,000	103,300	5.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가 수주물량 해소와 고가 선박 매출 인식 본격화로 상선 부문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캐나다 CPSP-국내 KDDX 등 특수선 수주와 해양플랜트 발주 확대 기대감
삼양식품 (003230.KS)	6/29	1,111,000	1,162,000	4.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대덕전자 (353200.KS)	6/29	133,200	154,400	15.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용 MLB와 메모리 패키지 기판 수요 증가로 고부가 반도체 기판 매출 확대 기대 FC-BGA 가동을 회복과 자율주행·AI향 신규 수요 진입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세방전지 (004490.KS)	6/29	49,250	54,100	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 세방리튬배터리를 통한 북미 전력망용 ESS 모듈/팩 사업 진출 P/E 6배 수준의 저평가와 현재 주가 기준 4% 후반의 배당수익률 매력 부각
리가캠바이오 (141080.KQ)	6/29	142,900	150,000	4.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파마리서치 (214450.KQ)	6/29	324,000	366,500	1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세프라-중국 오프라인 채널 확대, 유럽-중동 의료기기 진출로 성장 모멘텀 부각 리뷰란 브랜드 가치 기반으로 내수 의료기기 수요 견조
코스메카코리아 (241710.KQ)	6/29	66,100	80,600	2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성장 지속으로 화장품 ODM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대 잉글우드랩 지분을 확대에 따른 연결·지배순이익 개선 효과로 실적 가시성 부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7.11%	+8.37%p	+81.33%	+5.6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1	334,000	314,500	-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7/1	2,650,000	2,560,000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Q26 Preview 매출액 87.1조원(YoY +292.0%), 영업이익 67.6조원(YoY +638.0%) 전망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220.KS)	7/1	2,184,000	2,205,000	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서버 랙 전력밀도 상승과 800VDC 전력 인프라 도입으로 서버용 MLCC 탑재량 증가 타이트한 공급과 가격 조건 개선이 하반기 실적 레버리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삼성생명 (032830.KS)	7/1	401,000	387,000	-3.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신계약 CSM 증가로 보험 본업의 이익 체력 개선 삼성전자 배당수익 및 자회사 연결 손익 증가로 투자손익 크게 개선
효성중공업 (298040.KS)	7/1	3,438,000	3,718,000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 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162,000	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신세계 (004170.KS)	7/1	755,000	776,000	2.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본업의 외국인 매출 확대와 리뉴얼-팝업 효과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흐름 지속 면세점 흑자 전환과 신세계인테리어서날 등 자회사 수익성 회복으로 실적 개선 가시성 상승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106,800	7.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리가켄바이오 (141080.KQ)	7/1	149,900	150,000	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브이엠 (089970.KQ)	7/1	109,300	119,700	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M15x 신규 투자와 1c나노 전환 투자 수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호실적 기대 2027년 M15x 잔여 공간-용인 1공장 투자 수혜까지 감안 시 중장기 실적 상향 여력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9%	+4.03%p	+59.21%	-16.4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57,020	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2,300	-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5,305	3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960	3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655.89	9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6.22	80.72	73.85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능 모멘텀 수혜 기대
AIRR (미국 중소형 산업재)	2026.6.22	133.25	133.25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75% 이상) 중소형 제조업 및 산업재 관련 기업들로 구성 되어 실질적인 미국 제조업 부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ETF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현상 가속화와 관세 구조 변화 등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 하에서 실질적인 인프라 건설, 기계, 엔지니어링 밸류체인 수혜 기대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3.23	75.80	90.10	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증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28	6.29	6.30	7.1	7.2	7.3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5월 광공업생산 (-0.9%, 이전치 1.5%) 중국 6월 제조업 PMI (50.3, 이전치 50) 중국 6월 서비스업 PMI (50.2, 이전치 50.1) 일본 5월 실업률 (2.5%, 이전치 2.5%) 미국 6월 CB 소비자기대 (91.2, 이전치 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수출 (70.9%, 이전치 53.2%) 한국 6월 수입 (30.1%, 이전치 20.8%) 중국 6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51.7, 이전치 51.8)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 (E 53.9, 이전치 54.0) 유로권 6월 CPI (E 3.0%, 이전치 3.2%) 유로권 6월 근원 CPI (E 2.5%, 이전치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6월 CPI (E 3.2%, 이전치 3.1%) 미국 6월 실업률 (E 4.3%, 이전치 4.3%) 유로존 5월 실업률 (E 6.3%, 이전치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6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53.1, 이전치 54.4) 	
7.5	7.6	7.7	7.7	7.8	7.9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6월 ISM 서비스업 지수 (E --, 이전치 51.3) 유로존 5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1.0%) 유로존 5월 PPI (E --, 이전치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5월 수출 (E --, 이전치 2.6%) 미국 5월 수입 (E --, 이전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5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116.1) 일본 5월 동행지수 (E --, 이전치 1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6월 PPI (E --, 이전치 3.9%) 중국 6월 CPI (E --, 이전치 1.2%) 일본 6월 공작기계 수출 (E --, 이전치 37.5%) 미국 6월 기준주택매매 (E --, 이전치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6월 PPI (E --, 이전치 6.3%)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